



# 성공의 조건

한 근 태 | 한스컨설팅 대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kthan@assist.ac.kr www.hansconsulting.co.kr

성공이란 무엇일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 직장에서 인정 받고 존경 받는 것,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가정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이다. 사람마다 성공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런 성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슈이다.

성공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기간 지식, 인격, 전문성, 대인관계가 쌓인 결과가 성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 인생역전, 대박같은 단어는 영화제목으로는 좋을 지 몰라도 실생활에서는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모래 위의 성처럼 지속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빙수 체인점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

지금도 그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회사를 만든 송사장은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이다. 다행히 머리가 좋아 명문대 경영학과를 다니게 되었고 늘 돈을 벌기 위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맛있는 팔빙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면 돈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이를 추진한다. 예상대로 사업은 번창했고 이를 프랜차이즈로 확대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20대 중반에 벌어진 일이다. 돈을 벌게 되자 이 청년은 도박에 탐닉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몇 억을 날리기도 했다.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프랜차이즈 권한을 남용했고 사기를 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사기혐의로 구속되었고 지금은 감방에 있다.

젊은 나이에 큰 노력없이 쉽게 번 돈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너무 급하다.

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성공하려 한다.

법씨를 뿌리자마자 추수하려 한다. 빨리 성공해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까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 해도 별로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땀 흘려 거둔 성공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젊은 나이에는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만일 고생총량의 법칙이 있다면 젊은 나이에 고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풍요롭게 늙어 젊은 시절의 고생을 회고하는 것과, 말년 고생을 하면서 풍요롭고 여유로웠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당신이라면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만일 찾을 수 없다면 지금 하는 일을 즐겨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얘기를 누구나 한다. 나 역시 이 말을 하고 싶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가능하긴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초반에 그것을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나이에 좋아하는 일을 찾고 이를 즐기는 사람은 축복 받은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

개인에게도 불행이고, 그런 사람을 채용한 조직에게도 불행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경험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다.

도둑질 빼고는 다 해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새로운 상황 속에 노출될 때 잠재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같은 일을 주구장창 같은 방법으로 하기 보다는 부서를 옮겨 다니며, 혹은 같은 부서에 있더라도 하는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으며,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며 세상을 알아 가는 것이 좋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 같은 일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아인슈타인의 얘기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온다.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늘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은 맡은 분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새로운 역할이 왔을 때 그것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불고기 브라더스 정인태 사장(예전 아웃백 대표)은 초년 시절부터 대학원을 다니며 회사 일을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새벽근무를 자청했고 직장인 롯데호텔을 가기 위해 매일 전철 첫 차를 타고 부천 집을 나섰다. 다양한 경험을 위해 웨이터 근무를 했고, 해외

동향을 알기 위해 자비로 유럽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덕분에 최연소 점장이 되었고, 외국인 회사에 스카우트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날 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우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한 사람이 밖에서도 성공한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샌다. 성공한다는 것은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이 그만 둔다면 조직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룬포스라는 세계적인 펌프 회사의 CEO 이강호 사장은 늘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일을 했다. 외국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성과를 냈는데 모함으로 갑자기 귀국을 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부인은 만삭의 몸이었다. 자신을 몰라주고 이런 대접을 하는 회사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사표를 내는 대신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1년 후 많은 성과를 냈고 인정도 받았다. 그러자 그는 사표를 냈다. 그리고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앞으로 다시는 나같은 부하직원을 두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회사 사장이 되었다. 회사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야망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최고가 되어라. 회사가 해고를 시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그만둘까 회사가 별별 떠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개인의 힘으로 성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성공의 속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은 속해 있는 조직을 일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몸값은 저절로 높아진다. 삼성전자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출신은 어디서나 대접을 받는다. 반대로 당신이 몸담은 조직이 무너

진다면 당신 몸값은 같이 무너진다. 망한 회사 출신은 어디 가나 대접 받지 못한다. 당신도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시장에서 보기 때문이다.

현재 당신이 속한 조직의 위상은 어떠한가? 업계 최고인가? 당신 조직을 일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인가? 흔히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구분하여 생각한다. “회사가 힘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월급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믿지 못하겠는가? 회사를 망하게 한 후 시장에 나와보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를 통해 개인의 상품성을 높이는 것, 지극히 건강한 시장경제의 선순환 사이클이다.

전문성의 확보도 중요한 이슈이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걱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진다. 부동산 중개사시험은 인기품목이다. 아마 이 상태로 나가면 전국민이 부동산 중개사가 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것으로 밥 먹고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은퇴 준비는 무엇일까? 흔히 사람들은 회사 일과 은퇴 후의 일을 구분한다. 평생 은행 일을 하던 사람이 생맥주집을 경영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갑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던 사람이 치킨 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성공할 수는 있다. 가능성이 적을 뿐이다. 성공은 확률의 문제이다.

확률은 평생하던 일을 갈고 다듬을 때 높아진다. 은퇴 준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일인자가 되는 것이다. 예전 부하 직원 중 하나는 PL (Product Liability, 제조자 배상법)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다. 그의 고백이다. “만일 회사에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쌓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금맥을 발견한 셈입니다.”

대인관계를 잘 쌓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편안하다. 독립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건 인간관계가 나쁘면 잘 될 수 없다. 하지만 회사 안에는 평생 그 일만 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부서간 협조도 전혀하지 않고, 뒷사람이랍시고 거들먹거리고, 힘없는 업체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자리를 이용해 온갖 횡포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적덕지가, 필유여경(積德之家, 必有餘慶) 덕을 쌓으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만고 불변의 법칙이다.

“일이 많아 힘들고 지친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우리가 지치는 것은 일에서 별다른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의 일을 즐기고,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도 힘들 것이 없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잘 나가게 되면 자신의 몸값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라. 그래도 힘들겠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당신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금맥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 전문성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도 일이 힘들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당신 주변의 상사, 동료, 부하직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당신의 고객이 되고, 당신이 하는 사업의 홍보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고 마구 대하고 짜증을 부리겠는가?

뿌린 대로 거둔다. 성공한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 또한 그럴 수밖에 이유가 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疏而不失)이다. 하늘의 법망은 엉성하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